

2022학년도 식중독사고 대비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

1. 필요성

식중독은 병원성 미생물이나 유해한 물질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건강 장애를 총칭하는 것으로 주로 급성위장 증세를 나타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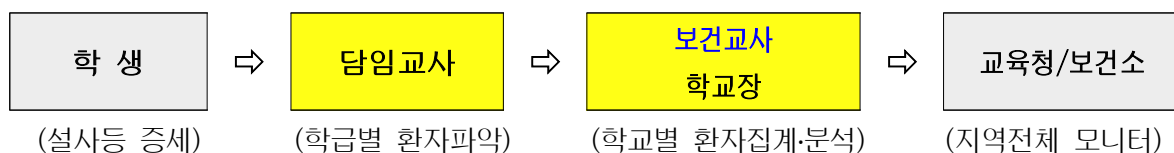
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수십명, 수백명에 이르러, 학생 개인의 건강 위험은 물론, 사고수습을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노고,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사일정 차질, 학부모들의 정신적·시간적·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며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항상 급식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.

한편, 이러한 식중독과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/식품매개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집단 발병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히 치료하고,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위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2.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

식중독은 원인균에 따라 잠복기가 다르지만 통상 원인식품 섭취 후 30분 ~ 24시간 이내에 설사·구토 등의 위장증상이 급식을 제공받은 다수의 학생에게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므로, 학교급식의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발생여부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. 따라서 학교에서는 평소 교내 집단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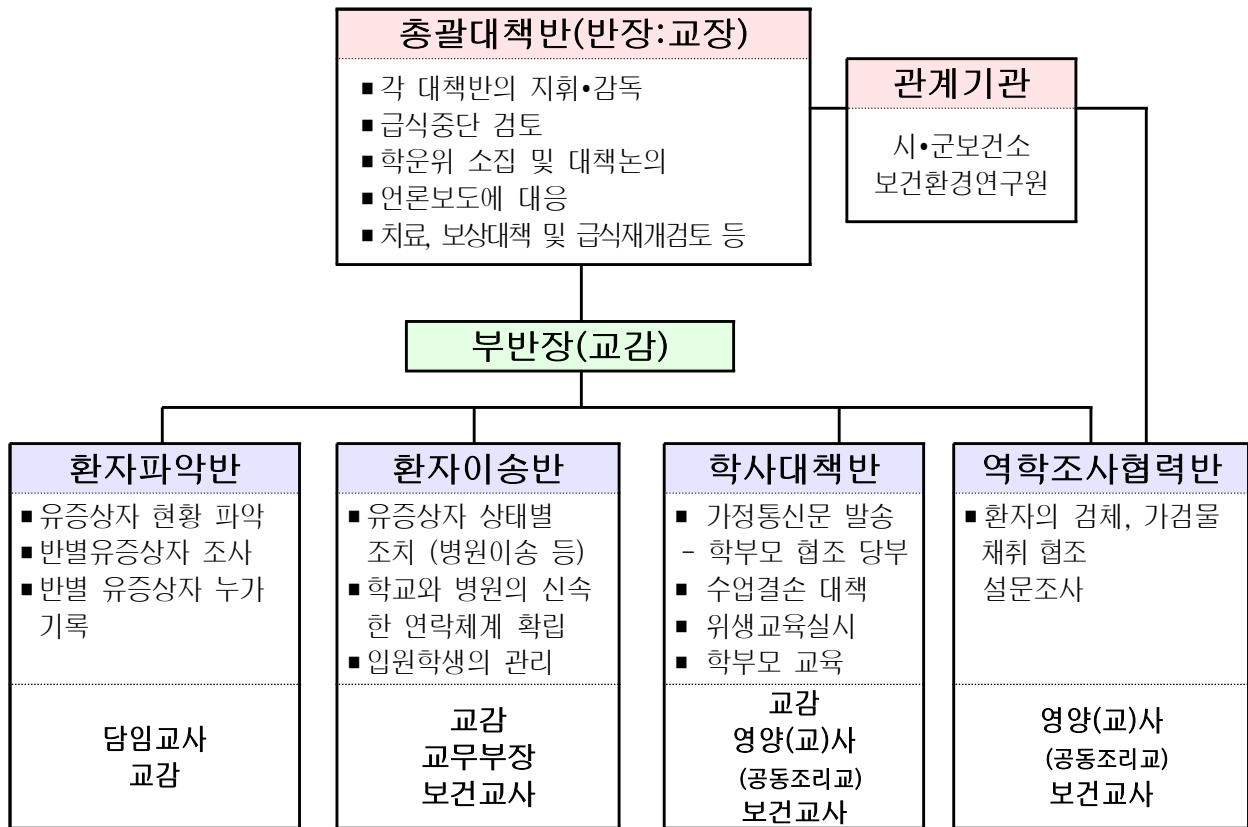
- 담임교사는 매일 결석, 조퇴, 지각한 학생의 수와 그 이유를 파악하여 평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.
- **보건교사**는 담임교사의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의 수, 주요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한다.
- 집단발생으로 의심되면 학교장은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속히 보고(신고)한다.



[학교 집단 환자 감시체계]

◎ 식중독 대책반 구성·훈련

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학교단위의 ‘식중독 대책반’ 을 구성·훈련토록 하여 만약의 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대책반의 조직과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.



[학교 식중독 대책반 구성도]

◎ 역학조사시 역할 분담

구 분		역 할 및 임 무
학 교	담임교사	◦ 설사환자 파악
	교감	◦ 환자파악 및 환자이송 ◦ 가정통신문 발송, 수업 결손 시 대책
	보건교사	◦ 설사환자 모니터자료 취합, 정리, 분석 ◦ 보건실 이용환자에 대한 실태파악, 분석 ◦ 보건교육 기획 및 실시, 역학조사 협조 등
	공동조리교 영양(교)사	◦ 보존식 확보 ◦ 위생교육 실시 ◦ 안전한 급식 및 식수제공 등
교 육 청		◦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 협조
보 건 소		◦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◦ 환자치료 및 필요시 입원격리 등
시·군·구청의 식품위생관련부서		◦ 원인추정 음식 및 가검물 채취 등 ◦ 식품유통, 반입상황, 조리, 이동경로에 대한 계통조사

3. 보건당국과의 협조사항

학교에서 식중독 등 집단환자 발생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태수습과 보건당국의 정확한 역학 조사를 위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※ 학교의 협조사항

- **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**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다.
-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, 음용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다.
 - ☞ **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**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한다.
- 학년반별로 복통 및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,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 여부를 기록한다.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현황을 파악하여 신환자를 추가로 기록한다.
 - ☞ 실제 환자가 아닌 학생이 환자로 파악되지 않도록 유의
- 질병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 환자 채변 및 설문조사에 협조한다.
-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식중독 등 발생사실을 통보하고, 가정에서 발병시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한다.
- 손씻기, 물 끓여먹기 등 학생 위생교육을 강화한다.

4. 발생후의 조치사항

식중독 등 집단발병이 수습되고, 식중독 재발요인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급식을 재개하고, 식중독 발생 원인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토록 하여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을 제고한다.

※ 급식의 재개

- 단순 식중독의 경우는 그 발생원인이 제거되어 재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식실 및 급식설바기구 청소와 소독, 조리기기 작동점검, 조리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급식을 재개하되, 이후 급식관리는 HACCP시스템에 의거 위생·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.
-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 전염병으로 밝혀진 경우는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고 위생적 급식환경 조성도 되고 조리종사자들의 보건검사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되면, 마지막 확진환자 발생 후 1주일이후에 급식을 재개할 수 있다. 이 때도 단순 식중독과 같은 청소와 소독 등을 거쳐 급식을 재개하고 HACCP시스템에 의거 위생관리를 강화한다.

※ 원인제공자에 대한 조치

식중독 발생원인에 따라 관련업체 제재 및 원인제공자,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.

- 원인이 식재료 또는 위탁급식에 있을 경우 : 학교장은 동 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민·형사상 책임 촉구

☞ 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또는 급식품에 의해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이 해지됨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

- 일용직 종사자의 보균 또는 명백한 잘 못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: 당초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학교장이 인사상 적절한 조치

☞ 식중독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인사상 조치조항 근로계약시 명시

- 영양사, 학교장 등의 관리 소홀에 원인이 있을 경우 : 관리책임의 경중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장이 조치

- 보존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경우 : 교육청은 담당자 및 관리자 문책

1) 위생사고 발생시 연락체계

전라북도교육지원청 -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063-850-8842

익산시청 - 보건위생과 1577-0072

익산시 보건소 - 전염병관리팀 1577-0072

2) 인근의료기관

원광대학병원 ☎ 1577-3773

익산병원 ☎ 063-840-9114

◎ 사고발생시 단계별조치사항

단계별	학 교	교 육 청
1단계	① 유증상자 현황 파악 - 반별유증상자 조사표 배부 및 취합 (결석생과 현재 유증상자) ② 교육청 및 보건소에 신고 ③ 학교 사고 대책반 가동 ④ 유증상자 상태별 (병원이송, 귀가조치 …학부모와 연락(담임)) ⑤ 학교급식 중단처리(금일포함) - 당일 식재료 및 급식품 처리(영양(교)사) - 반품 또는 폐기 - 관련 제장부 준비 (계약서 및 위생관련서류 등)	① 상부기관에 보고 ② 교육청 사고 대책반 가동 ③ 현장조사 - 학교사고 대책반 운영현장 지휘 ④ 병원방문(자료조사반) …의사 및 환자 면담 ⑤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(보건소 등)
2단계	① 역학조사에 협조(보건소) - 식재료, 보존식, 음용수, 환경가검물, 환자가검물 채취 협조 * 사고시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양 보존 [예 : 우유 200ml*1개, 위험요인이 있는 식재료(원재료) 100g이상, 보존식 1인분량 (100g이상)] ② 일일 상황 보고(9시,14시)	② 일일 상황 보고(9시,14시)
3단계	① 언론대처 …학교장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일관된 자료 등을 제공 (예 : 환자수) ② 학생, 학부모에게 식중독 사고 발생 경위 통지 …발생경위, 환자치료안내, 개인별도시락 지참 등 ③ 식중독 발병학생들의 수업결손 대책 마련	① 언론대처(도교육청 총괄) -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자료 제공
4단계	① 식중독 발병학생 치료 및 보상대책마련 -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및 급식품(재료) 납품 계약 내용에 따라 치료 및 보상 대책마련 (계약서 확인) - 피해보상계약조항 - 급식공급업체(위탁)는 식중독 및 식재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학생의 보상 및 치료비 부담 ② 식중독 원인을 제공한 급식납품업체 계약해지 - 납품된 급식품 또는 식재료 중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된 경우 계약 해지 - 계약해지 조항 참조 ③ 급식재개 정상화 방안 마련 - 급식업체 재선정, 조리실 소독 기기점검, 위생점검 ④ 사고처리 종료보고(서식 5참조)	① 검사결과 신속한 파악 (관계기관 확인) ② 보상현황 파악 ③ 계약해지 등 상황 파악 ④ 급식재개 인정 ⑤ 사고처리 종료 보고(서식 11참조)